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공사 현장에서 시작된 배상 요구,
주장한 손해를 그대로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청구의 90% 방어

대부분 방어

수목 훼손 · 자재 적치로 인한 배상 범위 제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건)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피고(반소원고)

변 론 종 결 2021. 3. 16.

판 결 선 고 2021. 3.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1.부터 2021.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1.부터 2021.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진행한 의뢰인은 인접 토지 소유자와 배상 범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일부 나무가 훼손되고 자재가 놓였다는 사실은 있었지만, 상대방이 주장한 피해 면적과 사용 기간까지 모두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을 무조건 부정하는 주장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그보다 넓게 제기된 요구를 구분하는 대응이었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양측은 훼손된 면적과 나무의 종류, 자재를 적치한 범위 및 기간을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측량감정과 사실조회 등 제출 자료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한 더 넓은 손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어떤 손해가 어느 범위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요구 금액 자체가 손해 발생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목 훼손 · 자재 적치로 인한 배상 범위 제한

사업을 흔드는 분쟁, 이제 책임과 대가를 분명히 하십시오.

인접 토지 훼손을 이유로 제기된 배상 요구. 해율은 상대방 청구의 90%를 막았습니다.

- 태양광 공사 뒤 토지 소유자와 손해배상 분쟁이 생겼다면?
-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요구 금액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
- 측량 결과와 현장 사진이 상대방 주장과 다르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율은 공사를 진행한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범위를 넘는 배상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상대방은 더 큰 금액의 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공사로 인한 책임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를 나누어 판단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판결은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금액 중 10%와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배상 의무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결과는 아니지만, 요구된 금액 대부분을 방어한 것입니다.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공사 중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배상 범위는 실제 행위와 증거에 따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접 토지 훼손을 이유로 제기된 배상 요구. 해율은 상대방 청구의 90%를 막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인접 토지 훼손을 이유로 제기된 배상 요구. 해율은 상대방 청구의 90%를 막았습니다.

- 상대방이 반소까지 제기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면?
- 공사 자재를 잠시 놓았다는 이유로 과도한 배상을 요구받았다면?
- 옆 토지의 나무를 훼손했다며 피해 범위를 크게 주장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